

유엔 사무국에서 배운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의 조건

- 직위 : 공공정보담당인턴(Public Information Intern)
- 부서 : 유엔본부사무국/공보(公報)국(DPI: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대외협력분과(OD: Outreach Division)/유엔아카데미임팩트(UNAI: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 기간 : 2012. 3. 1. ~ 2012. 8. 29.
- 이름 : 신지혜

간략한 자기소개 및 국제기구 경험 개괄

경희대학교에서 철학과 영어통·번역학 전공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방법 및 다양한 시사 지식과 언어에 대한 차별적 전문성을 획득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동(同)대학 평화복지대학원에 진학하여 국제평화학(Peace and Global Governance)과정을 통해 사회과학과 정치학을 공부하며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력과 통찰력을 습득하였다. 정부·비정부기구(NGO)와 사기업, 유네스코 봉사 등 다양한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뉴욕본부 공보국 산하 대외협력분과 소속 유엔아카데미임팩트(이하 UNAI)에서 인턴십을 수행하였다.

유엔 인턴십 준비과정

석사과정 첫 해에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 관한 수업을 수강하던 차에 국제기구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 특히 유엔과 비정부기구 간 협력에 관한 전문성 함양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소규모 NGO 에서의 인턴십 경험으로 이미 시민사회를 체험하고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한 개선점에 대한 고민 끝에 국제기구에서의 경험 없이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국제기구의 협력에 대해 전문성 있게 논할 수 없다는 중요한 한계점을 깨달았다.

국내 소재 소규모 NGO 에 비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인턴십을 획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원 입학과 동시 국제기구에 대한 꿈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했다. 관심 기구 위주로 유엔 공식홈페이지를 확인하여 기구별 프로젝트와 성과를 숙지하였고, 이코노미스트와 뉴욕타임즈 등을 통해 국제 시사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유엔직원 공식채용홈페이지인 “유엔 커리어(UN Career)”를 통해 관심 기관의 인턴 공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하였다. 내가 추구했던 분야는 유엔-비정부기구 간 협력증진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서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비정부기구에게 컨설턴트 지위를 부여하는 DESA(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GO 분과와, 각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 이슈를 다루는 UN Women 의 지식관리부였다.

여름 한 분기 동안 전 세계에서 뉴욕 소재 사무국 인턴십에 지원하는 대학원생의 수가 대략 8000 명을 웃도는 데에 비해 정작 인턴으로 선발되는 사람의 수는 100 명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무작정 인턴십에 지원하고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전직 국제기구 출신 교수님과 전문가들에게 관심 분야의 인턴십 진출 가능성을 문의하고 자문을 구하였다.

유엔 본부 인턴십 획득과정

유엔 인턴십 준비기간 중 소속 대학원 교수님을 통해 2011 년 9 월 유엔-경희대학교 공동 개최 세계 평화의 날 행사를 위한 학생 준비 위원회에서 활동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서울과 뉴욕에서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 (Give Peace Another Chance)"라는 주제 하에 동시에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에서 학생대표 자격으로 패널에게 유엔과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력관계에 대해 질문했다. 박식하고 재치가 돋보이는 토론 중재자는 유엔 공보국 소속 라무 다모다란 부서장님(Mr. Ramu Damodaran)이었고, 심포지엄 당시에는 그 분이 미래의 상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2011 년 후반기에 소속 대학원 장학재단인 미래문명원에서 부여하는 유엔인턴장학금을 획득하였지만, 이후에도 인턴십에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지나긴 준비 과정은 계속되었다. DESA NGO 분과(branch) 지원절차를 진행하던 중, 정치·외교과 교수님으로부터 전에 평화의 날 행사를 공동 주최했던 유엔 홍보부 UNAI 팀에 인턴 공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UNAI 는 꾸준히 준비해왔던 DESA NGO 혹은 UN Women 지식관리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팀이지만, 대중과 유엔의 접점 및 고등교육기관과 유엔의 접점 역할을 하는 공보국 소속 팀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유엔의 협력관계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소식을 전달받은 시점에는 UNESCO 단기봉사단 리더로 인도네시아 세마랑(Semarang)에서 활동 중이었지만, 마을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에서 신속하게 유엔 사무국 채용 홈페이지인 “인스피라(Inspira)”를 통해 UNAI 에 인턴으로 지원하였고, 한국에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유엔 사무국 인적자원부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3 주 후에 다모다란 부서장님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다.

유엔본부 UNAI 팀에서의 인턴 업무

유엔 뉴욕본부 사무국 공보국 소속 UNAI 팀은 유엔과 전 세계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지적 협력과 행동을 통하여 다양한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반기문 총장님의 주도하에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에 약 900 개의 회원대학을 소지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류와 교육적 협력을 도모하는 UNAI 산하 학생단체인 ASPIRE (Action by Students to Promote Innovation and Reform through Education)를 양성하고 다방면 활동지원을 제공한다. UNAI 와 ASPIRE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비슷한 개념인 “지적 사회적 책임 (ISR: Intellectual Social Responsibility)”의 비전 성취를 목표로 하는 협력 프로그램이다.

UNAI 에 합류한 이후 첫 한 달 동안에는 부서장님과 매일 회의를 통해 내가 인턴십을 통해 팀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과 팀에서 인턴에게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 꾸준한 대화와 조율을 통한 업무분장이 이루어 졌으며, 팀원 및 부서 직원들과 친분을 쌓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후 다양한 단·장기 프로젝트에 가담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업무의 양과 질의 상승을 경험하였다. 내가 맡았던 주요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UNAI 의 대외협력관계를 조성하고 파트너십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역할이었다. UNAI 의 기존 회원 고등교육기관 및 회원 연구소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새로운 협력기관 유치를 도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회원 기관에 UNAI 의 월간 소식지와 업데이트된 주요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신입 회원기관 혹은 멤버십 지원 예정기관과 향후 활동방향 및 협력분야를 설정하는 일이었다. 내가 시종(始終) 전담 책임자로 진행한 협력사업은 2012 년 하반기 동안 국제 씽크탱크인 브루킹스 인스티튜션(The Brookings Institution)과 UNAI 가 공동 개최한 “대학생 에세이 경진대회(Brookings Institution and UNAI Essay Writing Contest for University Student)”로, 대회 기획안부터 홍보와 진행, 심사, 수상에 이르기까지 주요 실무자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는 UNAI 공식 행사의 포컬 포인트(focal point)로서 제반(諸般) 이슈를 다루는 각종 포럼, 콘퍼런스, 심포지엄, 원탁회의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이었다. 행사 주제가 정해지면 백그라운드 및 콘셉트 페이지를 작성하고,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직접 초청하는 일을 하였다. 패널 멤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제를 구체화시키고 프로그램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행사이후에는 관련기사 작성 및 요청에 한해 요약본 송부를 맡았다. 내가 주요 실무자로 기획과 진행에 참여한 대표적 행사로는 “UNAI International Day of Human Space Flight(국제인간우주비행의 날)”, “UNAI International Jazz Day(국제재즈의 날)”,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Youth Forum on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

Empowering Youth with Better Job Opportunities(청년고용기회증진포럼)”, “The Government Law Center at Albany Law School/UNAI Panel Discussion on Sustainability in Developing Nations(알바니로스쿨 지속가능개발토의)”, “UNAI Debate Series Point Counter-point on Social media is anti-social(소셜미디어토론)”, “UNAI/Queens Museum of Art and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Queens 7/18-for Mandela Initiative(7/18 만델라프로젝트)” 등 다수가 있다. 모든 행사는 실시간 웹 캐스트로 전 세계에 방영되었으며, 유엔 공식 홈페이지에 반영구적으로 보관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UNAI 언론 관계자 및 대변인으로서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 웹페이지 개발 및 기사작성과 출판을 포함한 홈페이지 관리를 전담했다. UNAI 대외홍보부문의 경우, 공보국 소속 웹디자이너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접근성과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였고, 수시로 UNAI 와 ASPIRE 활동관련 기사와 콘텐츠를 작성하고 출판하는 일을 하였다. UNAI 활동의 대내 보고 및 홍보의 일환으로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송부하기위한 업무보고 형태의 Note to Secretary General 와 유엔 내부 홈페이지인 "iSeek"에 업로드 할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본받고 싶은 글로벌 리더이자 직속 상사, 라무 다모다란 부서장님

동료 유엔 인턴들과의 모임에서 매번 거론되는 내용 중 하나는 어떤 상사 밑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유엔에서의 경험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만난 상사는 인턴십 기간 동안 나에게 자기계발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리더란 어떠한 사람인지 가까이에서 본받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다모다란 부서장님을 통해 배운 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리더로서 부하 직원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능력이다. UNAI 는 프로그램 특성상 부서장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업무 집약적 소규모 팀이다. 부서장님은 인턴신분인 나를 신입 직원과 동일하게 대해 주셨고, 인턴십

중반부터는 P 급(P level)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주셨다. 지속적인 단독 면담과 팀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도와 팀원들의 직무선호도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셨다. 점차적인 질·양적 업무 증대를 통해 인턴인 나에게도 창의성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기계발을 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부서장님으로부터 인턴십 초기에 제안 받은 업무가 콘퍼런스 진행과 관리였다면, 중반부터 후반기까지는 특정 콘퍼런스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 목록 작성과 초청 및 콘퍼런스 진행까지 전담하는 포컬 포인트 업무를 전담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능력과 전문성이다. 다모다란 부서장님은 유엔에서 D 급(D level)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계시지만, 항상 겸손하셨고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관대하셨다. 인턴십 기간 동안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부서장님의 관대함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공보국과 UNAI 팀의 업무 특성상 유엔 사무국 소속 부서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엔 에이전시와 외부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를 필요로 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부서장님은 매일 반복되는 외부 협력체와의 회의에 임할 때 마다 참석자에 대해 잘 모르는 채로 회의장에 들어서시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항상 나에게 상대방의 프로필과 연구업적 등의 꼼꼼한 정보 조사와 정리업무를 할당하셨다. 규모가 작은 비공식적 회의 참여시에도 항상 먼저 정리된 정보를 세심하게 숙지하고 회의 참석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셨고, 대화에 앞서 상대방의 전문 분야를 반영한 토크 포인트(talking point)를 준비하셨다.

부서장님은 부하직원들과 인턴의 문화적 배경과 취향을 고려한 작은 선물과 세심한 배려로 항상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셨다. 공보국 부하직원들과 인턴인 나의 생일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실 정도로 세심하게 각 사람을 챙겨주셨다. 내 마지막 출근 날 팀원들을 모두 초대하여 인도식당에서 송별회를 열어주셨는데, 특별히 코스요리 중 하나를 한국 대표음식인 김치로 준비하여 잊지 못할 작별

선물로 주셨다. 귀국 후에도 부서장님은 나를 감동시키셨다. 대학원에 특강 강사로 오신 프라카쉬(Prakash) 주한인도대사님께 혹시 다모다란 부서장님을 아시는지 물었더니, “라무는 (외교관 동료들 사이에서) 전설이죠.(Ramu is a legend.)”라는 대답과 함께 부서장님이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다. 부하직원과 외부 협력체뿐만 아니라 동료 외교관들에게까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부서장님을 보면서, 글로벌 리더란 바로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관대함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세 번째로는 사명감(commitment)과 전문성(professionalism)이다. 다모다란 부서장님은 전직 외교관 출신이라는 배경을 넘어, 국제공무원(international civil servant)인 유엔 직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어떤 일이든지 내용과 진행방식에 있어 유엔의 이상과 직업윤리에 부합하도록 하는 숭선수범의 자세를 보이셨다. 자연스럽게 부서와 팀 내 직원들 모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본보기를 보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부서장님은 내가 팀의 일원이 되자마자 유엔의 이상과 직업윤리 및 국제적 리더십을 다룬 책과 자료를 건네주셨고 숙지하기를 권하셨다.

부서장님은 전문성도 강조하셨다. 한 번의 실수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지만 반복되는 실수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영문 서신과 이메일 및 제반 서류 작성과 결재 과정에서, 항상 자세히 읽어보시고 잘못된 정보 혹은 오타가 발견된 부분을 정확히 짚어 수정을 권고하셨다. 인턴십 초기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실수를 지적받았고, 잦은 실수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인턴이 쓴 초안 문서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시고 오타 하나까지도 철저히 지적해 주시는 세심한 부서장님 밑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신중함과 정확성의 중요성에 대한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아직도 내 책상 말에는 인도 출신 부서장님과 농담처럼 주고받던 “Hurry burry spoils the curry(성급히 만든 카레는 망치기 마련이다).”라는 인도식 속담이 붙어있다.

국제기구 인턴십을 준비하는 동료와 후배들에게

유엔 인턴십 준비과정 및 실제 인턴십 수행을 통해 터득한 세 가지를 나누고 싶다. 첫째, 국제기구 인턴십은 개인에게 국제기구에서 국제공무원으로 일하며 국제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의 특권이지, 절대로 특권층에게만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의 특권이 아니다. 국제기구 인턴십에 도전하기 전에는 ‘과연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도전해도 될까?’라는 생각과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엔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지원자의 출신 국이나 성별 혹은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한 차별을 지양(止揚)하고 사명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의 고용을 지향(志向)하는 기관이며, 충분히 자신의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도전해볼만한 곳이다.

둘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준비하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평소에 단·장기 목표를 세워 준비하면 기회가 와도 눈앞에서 놓치는 안타까운 순간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기구 인턴십은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지만, 너무 쉽게만 생각할 일도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무국 한 분기 인턴 공석이 100 개 미만인 것에 비해 전 세계의 지원자 수는 8000 명이 넘는다. 경쟁에 압도되어 포기하기보다 이를 더 열심히 준비하는 동기로 삼고 꾸준히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다보면, 단지 국제기구 인턴십을 위한 인위적 프로필이 아닌 국제기구 인턴십에 적합한 인재가 창조될 것이다.

셋째,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유연성을 갖고 전반적인 준비를 하라. 국제기구 인턴십 준비는 국제기구 정식직원 입사준비와는 다르다. 국제기구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지만, 인턴십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인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기구 등에서 실무능력을 쌓고, 국제적 환경에서 요구되는 국제적 감각과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Dream as if you wi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 will die tomorrow).”

-제임스 딘(James Dean)

“나는 이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을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I don't divide the world into the weak and the strong, or the successes and the failures, those who make it or those who don't. I divide the world into learners and non-learners).”

-벤자민 바버(Benjamin R. Barber)

